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4호 【주제 제24727호】 주제 103(2014)년 11월 10일(월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자랑찬 위훈을 수놓아온 올해의 투쟁이 결속단계에 들어섰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힘차게 밀어붙이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남김없이 파시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추전투와 맞닿아 있는 승리자의 진군입니다.》

올해는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올해 총진군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영웅적진군으로 힘있게 불려나오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배준 강령적지침이었고 온 나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기상이 나래치게 한 원동력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 정초부터 총진군대의 진두에 서시어 강성국가건설대전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 시었다. 인민군부대와 인민경찰 여러 부문에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선군장정은 수명의 위업에 대한 불완한 총진군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닌 절세의 위인만이 수놓을수 있는 영웅서

사시적행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와 제9차 전국예술훈예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은 모든 전선에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칠수 있게 한 전향적계기로 되었다.

당과 수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비상한 각오와 열정으로 심장을 끓이며 올해전투의 첫 시작부터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대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결에서 더욱더 억척같이 다져진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높이 펼쳐졌으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파죽이뿜아물고나가는 선군조선의 억척 기상이 힘있게 파시되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비렬하고 끈질긴 반공화국책동도 우리 조국의 힘찬 진군을 멈춰세울수 없었다.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사상, 우리 힘, 우리 식이 제일이며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강성스러운 위업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 것이 다시한번 뚜렷이 실증되었다.

앞으로 년날까지의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는 승리자의 커다란 공지와 자랑을 안고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본때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는것은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우리의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열매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올해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해놓았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올해 앞목고지정령을 위한 투쟁을 왜강히 벌려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가져왔으며 전력, 석탄공업부문에서도 다져진 전투적조성을 높이 받들고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전력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시대 속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에 세차게 타올라 짧은 기간에 위성과학자주택 지구와 연공과학자휴양소, 김책공업 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서며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새로지구 축산기지건설과 같은 중요대건설일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과학, 교육, 체육을 비롯한 문화분야에서도 인민들에게 희망찬 미래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고 세계를 격동시키는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안아올수 있는것이다.

무슨 일이나 시작도 잘 때야 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올해를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이려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올해에 내세운 전투목표를 무조건 끝까지 점령할 때 우리 당의 결심이 훌륭한 결실을 맺고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의 기상이 더 높이 펼쳐질것이다.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는것은 다음에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공격적계로를 다지는 매우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이다.

다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이하게 된다. 당창건 70돐은 백두산철새위인들의 불멸의 당진업적에 만대이 길이 빛나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적권위와 전투적위력을 온 누리에 힘있게 떨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당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하는것은 마땅한 본분이며 의무이다.

주제104(2015)년을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길 혁명적경사의 해, 위대한 승리의 해로 내어오면 그 준비사업을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 전투승리는 시작전에 마련된다. 다음에 우리가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자고 하여도 그렇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첫 전투부터 기세를 올리고 하여도 올해전투를 든든히 차지하여야 한다.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는데 다음해의 총진군에서 승리의 향방을 부를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승리와 성과에 자만할수 없고 계속 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이 남김없이 발휘되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오늘의 양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계속 고조시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올해전투의 승리적결속을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고 박력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의 무궁무진한 위력 명적열의와 투쟁기세는 대단히 높다. 일군들은 대승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올해전투결속을 위한 조직사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의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올해 내세운 전투목표와 그 수행행동을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미진된 부분이 하나도 없게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 오늘 하다가 못하면 레일 해도 된다는 그릇된 사고관점, 오분열도식일분세를 결정적으로 없애고 팔장을 붙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성과여부가 자신들의 품 잡고 생산대중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신심속에 이바약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어야 한다.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전투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제기고 완강한 전개력과 높은 실력으로 인자리를 폭 폭 내는 실천가형의 일군이 되어야 한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올해사업은 전적으로 당과 조국앞에 자기 책임진다는 각오를 안고 분발하고 고도 분발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과 일본세를 철저히 구원해나가야 한다.

올해의 총진군을 통하여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의

모든 부문에서 올해전투에서 커다란 생산적양상을 일으킨 그 기세로 다음 해에 더 큰 비약을 안아올수 있도록 준비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와 예비부속품, 원료, 자재확보를 비롯한 사업을 미지미리 착실히 해놓아야 한다. 당면 생산에만 몰두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며 다음에 진행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작전하고 그 준비를 하나하나 예견성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선전선동력량을 총동원하고 화선식선전선동공세를 더욱 박력있게 들어대어 모든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대중의 정신력이 남김없이 분출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머지않아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돐을 맞이하게 된다. 각급 당 조직들에서는 사상공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된 필멸적 결투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애써 지은 농작물이 허실되지 않도록 올해농사결속을 잘하는것과 함께 가을에 농사준비를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올해에 백전백승을 위한 완강공세를 적극 끌어내고 구역 절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 소련 국방상 데. 페. 아조브원수에게 축하친서와 선물, 꽃바구니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 소련 국방상 데. 페. 아조브원수의 생일 90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하친서와 선물, 꽃바구니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축하친서와 선물, 꽃바구니를 데. 페. 아조브원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로씨야를 방문하고있는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현영철동지가 8일 아조브원수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아조브원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의 생일을 잊지 않으시고 축하친서와 선물, 꽃바구니를 친히 보내주신데 대하여 그에게 깊이 머리숙여 인사를 올린다고 말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무력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축하단을 파견해주시어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이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라오스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연공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휴양소, 휴양각, 휴식터, 산보길, 다용도야외운동장 등 연공과학자휴양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비약의 속도, 조선속도를 또다시 창조한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었다.

연공 과학자 휴양소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선로동당에서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강산이라고,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며 쌓여온 피로를 풀면서 사회주의부귀영

화를 누리게 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인도네시아의 락탈 머드레카 통신, 우루파이신문(라 후벤 무드)와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의연구 전국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련대선 브리핑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쿠바의 브레와 라파나통신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526내전합부대와 제478원합부대사회의 쌍방실동훈편을 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의 훈편을 보시고 매우 만족하시면서 앞으로 인민군대에서 이런 훈편을 자주 조직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고 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피르스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평양음악

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원아들의 동심과 생활조건에 맞게 꾸려진 평양음악원,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원아들의 보육과 교육요양, 성장발육, 지능개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손색없이 꾸렸다고 말씀하시었다.

네팔신문 《머지드르》, 인도네시아의 락탈 머드레카통신,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도 이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라오스, 인도네시아, 우루파이, 브라질, 네팔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새로 건설한 군인식당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식당을 바라보시면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식사업, 주방을 비롯한 군인식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봉사활동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식당의 관리운영과 봉사활동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식당을 군인들이 즐겨찾는 대중식당으로 꾸며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서 그처럼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군인들을 위한 헌신적 북부정신을 지니고 친절성, 문화성을 발휘하는것과 함께 국수의 끓여내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었다.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평양음악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신 소식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썬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인민무력부장 현영철동지를 만났다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썬 로씨야 련방 대통령이 8일 전 소련 국방상 데. 페. 아조브원수의 생일 90돐 축하행사에 참가한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현영철동지를 만났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썬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현영철동지가 정중히 전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 년간 강철생산계획 넘쳐 수행

해산강철공장에서 생산적양이 일어났고있다.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년초부터 중순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이력 동계공업의 헌신적 열의에 의하여 년간 강철생산계획이 5월까지 103% 넘쳐 수행되었다.

일군들은 들끓는 현강들에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정치사업을 전진전대로 벌려 대중을 새로운 혁신창조로 불려일으켰다.

이와 함께 원료, 자재보장에 힘을 합쳐면서 있는 예비와 가능성이 최대한 동원이용되

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압연기를 자체의 힘으로 맞게 개조함으로써 원단위소비를 극력 낮추면서 도 생산성을 1.2배로 끌어올리었다.

공장의 기술자들이 사색과 탐구로 연구도입한 10여건의 가치있는 새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서 온을 내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년간계획을 수행한 그 기세로 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 불타는 일념

전국적으로 460여km의 도로 기술개건, 1300여km의 강하천 정리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당의 뜻은 높이 받들고 각급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을철국도관리총동원사업결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가을철국도관리총동원사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60여km의 도로가 기술개건되고 1300여km의 강하천이 정리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국도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변영을 위한 만년대기에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

한 생활편의를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로 가슴을 끓이며 가을철국도관리총동원사업에 떨쳐나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었다.

도로기술개건공사에서 성과가 이룩되었다.

평안남도에서 목표를 높이 세우고 도로기술개건공사작전을 통이 크게 펼치었다. 도에서는 신양군의 지수유로부터 회창군까지의 도로보수를 위한 로반공사에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은

### 우리 나라 염윤철선수 2중세계선수권 보유, 2개의 금메달 쟁취

2014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염윤철선수가 8월 2014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2중세계선수권을 보유하였다.

까지호스판의 알파미에서 개막된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7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녀 선수 530여명이 참가하고있다.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금메달수상자이며 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 선수권보

추켜올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1등을 한 염윤철선수에게 금메달들이 수여되었다.

력기전문가들과 관람자들이 2중세계선수권보유자로 된 염윤철선수를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염윤철선수가 또다시 이룩한 승리의 소식은 뜻깊은 올해를 거창한 창조와 위훈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다. -서성구역원림사업소 화산양묘장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 《선군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었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었습니다.》 김정은

## 위대한 생애, 불멸의 업적

# 불패의 백두산혁명장군을 키우신 희세의 선군령장

선군! 불려볼수록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명도업적이 되게져서 천만민국의 가슴가슴은 격정에 젖는다. 선군이라는 이 말은 과연 어떤 역사적체함을 담고있는것인가. 영광의 시대를 규정하며 우리 조국역사에 떠오른 이 시대에속에는 어떤 불멸의 헌신과 로고가 숨어있는것인가.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원하여오신 드림없는 혁명신조였으며 혁명실천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들의 반공화국괴롭, 압살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 엄중한 정세속에서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정치군사강국으로 존엄과 위엄을 떨치며 우리 식의 경제강국으로 새롭게 비약하고있는것은 장군님의 선군정치기 안아온 세계적인 기적이다.》

위대한 장군님, 하늘땅을 뒤흔들며 울려 퍼진 그날의 총성은 변함없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기려는 위대한 선군명령의 신념의 선언이었다. 다음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에 대한 새해 첫 헌지시찰의 기록한 자욱을 찍으시었다. 잊지 못할 다박솔언덕이 가슴을 친다.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맞이한 새해의 첫날 아침 우리의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찾으실때 그 누가 알았나. 그날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고 중대 교양실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상의 사진문헌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이곳 중대의 포실한자욱을 지도해 주시고 전투기술기재들을 보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진문헌앞에서. 뜻깊은 그 사진문헌앞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었다. 그때 일군들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어이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맞이한 새해 첫날 아침 다박솔초소부터 찾으시였는 지, 수령님의 사진문헌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는 그의 심중에서 어떤 의지가 굳혀지고있는지. 그날 저녁이었다.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밀고나가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를 빛나게 실현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박솔초소에 대한 헌지시찰은 그대로 조국과 민족앞에 조성된 난국을 총대로 헤쳐나가기려는 강철의 선군명령의 철석같은 신념의 파시였고 어버이수령님의 유언대로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여 혁명의 불을 기를 영원히 높이 휘날리시려는 백두명장의 드높지 않는 의지의 분출이었다.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으신 첫날, 이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면서 오늘이 드시었던 붉은기 20세기 90년대의 하늘가에 더 높이, 더 세차게 퍼져이게 한 우리 조국역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사가 시작되던 지금으로부터 54년전 역사의 그날이 추억깊이 떠오른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자욱이 어려 어떤 의지가 굳혀지고있는지. 그날 저녁이었다.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밀고나가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를 빛나게 실현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박솔초소에 대한 헌지시찰은 그대로 조국과 민족앞에 조성된 난국을 총대로 헤쳐나가기려는 강철의 선군명령의 철석같은 신념의 파시였고 어버이수령님의 유언대로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여 혁명의 불을 기를 영원히 높이 휘날리시려는 백두명장의 드높지 않는 의지의 분출이었다.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으신 첫날, 이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면서 오늘이 드시었던 붉은기 20세기 90년대의 하늘가에 더 높이, 더 세차게 퍼져이게 한 우리 조국역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사가 시작되던 지금으로부터 54년전 역사의 그날이 추억깊이 떠오른다.

위대한 장군님, 하늘땅을 뒤흔들며 울려 퍼진 그날의 총성은 변함없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기려는 위대한 선군명령의 신념의 선언이었다. 다음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에 대한 새해 첫 헌지시찰의 기록한 자욱을 찍으시었다. 잊지 못할 다박솔언덕이 가슴을 친다.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맞이한 새해의 첫날 아침 우리의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찾으실때 그 누가 알았나. 그날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고 중대 교양실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상의 사진문헌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이곳 중대의 포실한자욱을 지도해 주시고 전투기술기재들을 보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진문헌앞에서. 뜻깊은 그 사진문헌앞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었다. 그때 일군들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어이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맞이한 새해 첫날 아침 다박솔초소부터 찾으시였는 지, 수령님의 사진문헌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는 그의 심중에서 어떤 의지가 굳혀지고있는지. 그날 저녁이었다.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밀고나가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를 빛나게 실현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박솔초소에 대한 헌지시찰은 그대로 조국과 민족앞에 조성된 난국을 총대로 헤쳐나가기려는 강철의 선군명령의 철석같은 신념의 파시였고 어버이수령님의 유언대로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여 혁명의 불을 기를 영원히 높이 휘날리시려는 백두명장의 드높지 않는 의지의 분출이었다.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으신 첫날, 이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면서 오늘이 드시었던 붉은기 20세기 90년대의 하늘가에 더 높이, 더 세차게 퍼져이게 한 우리 조국역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사가 시작되던 지금으로부터 54년전 역사의 그날이 추억깊이 떠오른다.

위대한 장군님, 하늘땅을 뒤흔들며 울려 퍼진 그날의 총성은 변함없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기려는 위대한 선군명령의 신념의 선언이었다. 다음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에 대한 새해 첫 헌지시찰의 기록한 자욱을 찍으시었다. 잊지 못할 다박솔언덕이 가슴을 친다.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맞이한 새해의 첫날 아침 우리의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찾으실때 그 누가 알았나. 그날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고 중대 교양실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상의 사진문헌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이곳 중대의 포실한자욱을 지도해 주시고 전투기술기재들을 보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진문헌앞에서. 뜻깊은 그 사진문헌앞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었다. 그때 일군들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어이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맞이한 새해 첫날 아침 다박솔초소부터 찾으시였는 지, 수령님의 사진문헌앞에서 깊은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주제 83 (1994)년 12월 31일, 력사의 총성이 온 강산에 메아리 쳐왔다. 어느 한 사적장에 나가서 자동보총과 기관총의 만탄창을 다 푸신

위대한 장군님, 하늘땅을 뒤흔들며 울려 퍼진 그날의 총성은 변함없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기려는 위대한 선군명령의 신념의 선언이었다. 다음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에 대한 새해 첫 헌지시찰의 기록한 자욱을 찍으시었다. 잊지 못할 다박솔언덕이 가슴을 친다.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맞이한 새해의 첫날 아침 우리의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찾으실때 그 누가 알았나. 그날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고 중대 교양실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상의 사진문헌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이곳 중대의 포실한자욱을 지도해 주시고 전투기술기재들을 보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진문헌앞에서. 뜻깊은 그 사진문헌앞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었다. 그때 일군들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어이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맞이한 새해 첫날 아침 다박솔초소부터 찾으시였는 지, 수령님의 사진문헌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는 그의 심중에서 어떤 의지가 굳혀지고있는지. 그날 저녁이었다.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밀고나가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를 빛나게 실현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박솔초소에 대한 헌지시찰은 그대로 조국과 민족앞에 조성된 난국을 총대로 헤쳐나가기려는 강철의 선군명령의 철석같은 신념의 파시였고 어버이수령님의 유언대로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여 혁명의 불을 기를 영원히 높이 휘날리시려는 백두명장의 드높지 않는 의지의 분출이었다.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으신 첫날, 이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면서 오늘이 드시었던 붉은기 20세기 90년대의 하늘가에 더 높이, 더 세차게 퍼져이게 한 우리 조국역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사가 시작되던 지금으로부터 54년전 역사의 그날이 추억깊이 떠오른다.

위대한 장군님, 하늘땅을 뒤흔들며 울려 퍼진 그날의 총성은 변함없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기려는 위대한 선군명령의 신념의 선언이었다. 다음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에 대한 새해 첫 헌지시찰의 기록한 자욱을 찍으시었다. 잊지 못할 다박솔언덕이 가슴을 친다.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맞이한 새해의 첫날 아침 우리의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찾으실때 그 누가 알았나. 그날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고 중대 교양실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상의 사진문헌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이곳 중대의 포실한자욱을 지도해 주시고 전투기술기재들을 보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진문헌앞에서. 뜻깊은 그 사진문헌앞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었다. 그때 일군들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어이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맞이한 새해 첫날 아침 다박솔초소부터 찾으시였는 지, 수령님의 사진문헌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는 그의 심중에서 어떤 의지가 굳혀지고있는지. 그날 저녁이었다.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밀고나가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를 빛나게 실현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박솔초소에 대한 헌지시찰은 그대로 조국과 민족앞에 조성된 난국을 총대로 헤쳐나가기려는 강철의 선군명령의 철석같은 신념의 파시였고 어버이수령님의 유언대로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여 혁명의 불을 기를 영원히 높이 휘날리시려는 백두명장의 드높지 않는 의지의 분출이었다.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으신 첫날, 이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면서 오늘이 드시었던 붉은기 20세기 90년대의 하늘가에 더 높이, 더 세차게 퍼져이게 한 우리 조국역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사가 시작되던 지금으로부터 54년전 역사의 그날이 추억깊이 떠오른다.

위대한 장군님, 하늘땅을 뒤흔들며 울려 퍼진 그날의 총성은 변함없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기려는 위대한 선군명령의 신념의 선언이었다. 다음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에 대한 새해 첫 헌지시찰의 기록한 자욱을 찍으시었다. 잊지 못할 다박솔언덕이 가슴을 친다.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맞이한 새해의 첫날 아침 우리의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찾으실때 그 누가 알았나. 그날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고 중대 교양실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상의 사진문헌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이곳 중대의 포실한자욱을 지도해 주시고 전투기술기재들을 보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진문헌앞에서. 뜻깊은 그 사진문헌앞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었다. 그때 일군들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어이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맞이한 새해 첫날 아침 다박솔초소부터 찾으시였는 지, 수령님의 사진문헌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는 그의 심중에서 어떤 의지가 굳혀지고있는지. 그날 저녁이었다.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밀고나가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를 빛나게 실현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박솔초소에 대한 헌지시찰은 그대로 조국과 민족앞에 조성된 난국을 총대로 헤쳐나가기려는 강철의 선군명령의 철석같은 신념의 파시였고 어버이수령님의 유언대로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여 혁명의 불을 기를 영원히 높이 휘날리시려는 백두명장의 드높지 않는 의지의 분출이었다.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으신 첫날, 이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면서 오늘이 드시었던 붉은기 20세기 90년대의 하늘가에 더 높이, 더 세차게 퍼져이게 한 우리 조국역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사가 시작되던 지금으로부터 54년전 역사의 그날이 추억깊이 떠오른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업적을 더욱 빛내여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있는 인민군군인들

위대한 장군님, 하늘땅을 뒤흔들며 울려 퍼진 그날의 총성은 변함없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기려는 위대한 선군명령의 신념의 선언이었다. 다음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에 대한 새해 첫 헌지시찰의 기록한 자욱을 찍으시었다. 잊지 못할 다박솔언덕이 가슴을 친다.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맞이한 새해의 첫날 아침 우리의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찾으실때 그 누가 알았나. 그날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고 중대 교양실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상의 사진문헌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이곳 중대의 포실한자욱을 지도해 주시고 전투기술기재들을 보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진문헌앞에서. 뜻깊은 그 사진문헌앞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었다. 그때 일군들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어이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맞이한 새해 첫날 아침 다박솔초소부터 찾으시였는 지, 수령님의 사진문헌앞에서 깊은

##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서

### 군사력에서 기본

주제 83(1994)년 12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인민군지휘정원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과 대결은 군사적힘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의 대결이 라는 고귀한 철리를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사적 타격력은 한계가 있지만 사상의 위력은 한계가 없으며 그 위력은 원자탄보다 더 강하다고, 군사력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군사력강화의 길은 뜻이 담긴 그의 말씀을 받아안는 인민군지휘정원들의 가슴은 세차게 울렁이였다. 잠시후 인민군지휘정원들을 미더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 강조하시었다.

참으로 그의 말씀은 혁명군대의 위력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의 위력이며 인민군대를 무적불승의 전투대로 강화발전시키자면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힌 귀중한 가르치심이었다. 어느해 2월이었다. 끊임없는 선군정치의 길에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군대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은 전사나 장병이 될것없이 다 혁명동지이고 전우라고 하시면서 전군이 하나의 동지가 되어 한 마음한뜻으로 똘똘 여겨인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 고귀한 지침

한없이 신성하고 고귀한 이 부분은 우리 병사들을 제일로 여기고 내세워주시며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가르치심이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전선에 위치한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부대지휘관으로부터 적들의 행적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화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적과 싸워 이기자면 무엇보다도 군인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사상의식이 높아야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 손에 총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으며 나라와 인민의 운명도 지켜낼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

### 불패의 힘의 원천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이 하나의 동지가 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관병일치의 전동적미풍을 높이 함양하여 혁명군대의 위력을 계속 떨쳐나가야 한다고, 인민군인들은 나의 아들딸들이며 참다운 선군혁명동지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참다운 선군혁명동지,

### 병사들의 위훈을 빛내여주시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몇 해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군인들이 일떠세운 최전1호발전소 통일연계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문주앞에 이르시어 《통일연계》라는 글발을 이루도록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문주들 들로 품위있게 잘 만들어세웠다고 하시며 언제우에 서있는 기둥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겠다고, 사진에 글발이 잘 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각근히 이르시었다.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번째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얼마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말에 이르시었다. 우에서 내려다볼 때도 그러하였지만 밑에서 올려다보는 통일연계의 거장함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이 절로 터져나오게 하였다.

### 사랑의 솜동복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사랑하는 전사들의 옷자락에 스며드는 한점의 땀까지 심장으로 감수하시며 솜동복의 두께를 가늠하시었던것이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허리를 굽히고 병사들의 솜신발을 푹푹 눌러보시면서 발이 시리지 않은가고 물으시었다. 두 병사들 우리 장군님의 친부모의 살뜰한 사랑앞에 눈시울을 적시며 발이 시리지 않다고 대답하시었다. 지휘관들은 그이께서 오래도록 추위속에 계시는것이 걱정되어 빨리 내려가시자고 말씀하시었다.

### 사랑스러운 솜동복

부족 해입히지 못하게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바늘 구멍으로 바람이 새는 누빈 솜동복이 아니라 누빈것이 솜동복을 군인들에게 공급하여준데 대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사랑의 솜동복, 그것은 우리 병사들에게 있어서 추위만을 막아주는 군복이 아니었다. 선군명장의 위대한 사랑이 숨내어준 솜동복의 솜이였으며 병사들을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키우는 위훈의 역센 나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사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철저한 반제자주, 끝없는 애국헌신의 력사이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일심과 친어버이사랑으로 수놓아진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령도사입니다.》

심중만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자책감으로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병사들에게 솜동복을 제기일에 해입히는것으로 만족해하였지 그들이 입고있는 솜동복이 그보다 얇아졌다는것은 더구나 느끼지 못하였고 전사들도 자기들이 입고있는 솜동복을 만족하게 여기고있었다. 그러나

호리선 안색으로 지휘관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사들이 추워하는것을 보니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군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헌지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추운 때 산꼭대기에서 군무를 서고있는

전사들의 수고를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지금보다 더 두툼한 솜동복을 해입히지 못하게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바늘 구멍으로 바람이 새는 누빈 솜동복이 아니라 누빈것이 솜동복을 군인들에게 공급하여준데 대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산중턱에 내려와보니 언제 더 높고 웅장해보인다고 하시며 높이 솟은 언덕을 배경으로 사진을 또 찍어야 할것 같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 오를 통일연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 군인전선자들의 영웅적위훈을 추켜잡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통일연계에서 세번이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것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꽃되는 건설의 날에 군인전선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을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 없는 사랑이 담긴 불멸의 화폭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산중턱에 내려와보니 언제 더 높고 웅장해보인다고 하시며 높이 솟은 언덕을 배경으로 사진을 또 찍어야 할것 같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 오를 통일연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 군인전선자들의 영웅적위훈을 추켜잡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통일연계에서 세번이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것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꽃되는 건설의 날에 군인전선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을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 없는 사랑이 담긴 불멸의 화폭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산중턱에 내려와보니 언제 더 높고 웅장해보인다고 하시며 높이 솟은 언덕을 배경으로 사진을 또 찍어야 할것 같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 오를 통일연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 군인전선자들의 영웅적위훈을 추켜잡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통일연계에서 세번이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것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꽃되는 건설의 날에 군인전선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을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 없는 사랑이 담긴 불멸의 화폭이였다.



조국의 운명 지켜러 위대한 장군님 끊임없이 이어가신 전선강행군길의 만만사연을 전하는 오성산

본사기자 리명일 찍음





# 대고조시대와 숨결을 함께 하는 창조속에 참된 애국이 있다

## 탄부들의 제복에는 령장이 빛난다

탄부! 한생을 지하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사람이다. 우리의 생활에 빛과 열을 주는 석탄은 깊고 깊은 지하에 있다. 그것을 캐는 일을 우리 탄부들이 한다. 그들의 제복에는 령장이 빛난다. 인로탄광의 갱도와 마늘에서 만나는 탄부들마다 차림새는 수수하였다. 그러나 돌보았다. 이 땅을 넘쳐흐르는 행복의 불빛, 아이들의 기쁨의 웃음소리 뒤에 바로 우리 탄부들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합니다.」

십리굴간에 널려있는 인로탄광의 갱도에서 우리는 애국으로 들끓는 탄부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거기에는 영웅장조도 있고 탄광이 자랑하는 차광수청년들처럼 대장장도 있으며 소문난 굴진공, 체당공도 있었다.

「교대야 따로 없습니까. 하루하루를 수행한 탄부들이 교대야 따로 마작을 틀어놓을 안합니다.」

1명 갱장 김광철동무의 말이다.

사실 현재의 굴진속도로 나가면 몇 달이면 할 일도 없다. 그러고도 1명의 굴진공들은 성직하지 않는다. 막장이 전진해야 조국이 전진한다는 자각이 그들의 가슴을 끓이고있는 것이다.

불마친 1명 막장의 한구간이 있었다. 하루계획을 세웠다. 안타까웠다. 어떻게 할것인가. 물러설수는 없었다.

「동무들, 순간도 멈춰서지 말자. 조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갱장의 말에 탄부들 모두가 어깨를 들이밀었다. 그 앞장에는 당원, 체당공인들이 서있었다. 그들은 한쪽으로는 불랑구간을 극복하고 다른쪽으로는 체당 작업을 계속하였다.

후시구역이 내렸지만 누구도 일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불랑구간의 들들이 잠간사이에 탄자들을 가득 채우곤 했다. 긴장한 전투의 분분초초가 흘렀다. 그날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불랑구간을 성과적으로 극복하였다. 하루계획을 기어이 수행한 그들의 얼굴마다 기쁨의 미소가 어렸다.

그 어떤 난관도 결코 석탄장산으로 당의 뜻을 받들어가는 이들의 드세한 전투를 가로막지 못할것이었다.

오늘도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는 역사의 신념을 안은 1명의

탄부들은 막장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석탄생산량을 계속 높여가고있다.

10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3개의 자랑은 또 얼마나 많은가.

갱의 자랑중의 자랑은 로력영웅이며 선군시대 풍조자인 우원용동무가 갱장이라는 것이다.

중대장일을 할때에도 그랬지만 갱장이 되어 1년 가까이 나날에도 그는 언제나 석탄생산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3갱에는 오랜 기능공들과 혁신자들이 많다.

연세 봐야 대오의 앞장에서 돌격로써 들어가는 2중대장 류영광동무와 3중대장 김남수동무를 비롯한 대오의 기술자, 30년동안 탄전에서 묵묵히 조국의 석탄산을 쌓아가고있는 굴진공 리만중, 락도영동무들과 체당공들인 진태철, 리형철동무들...

차도공인 아버지와 함께 갱에서 일하며 석탄을 실어 나르는 전차운전공 리형철동무도 있다.

그들의 나이도, 맑은 일도 각이하다. 허나 그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있는것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탄을 캐낼 것인가 하는것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10년만 젊어도 마작에서 탄을 캐고싶다면 아버지수령님의 그 말씀에 심장

으로 그 이름을 떨치고있다. 한 탄부의 안해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탄부들 막장을 걷는 사람이다. 그 길은 비록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길이지만 평양과 잇닿아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잇닿아있는 애국의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탄부들이 더없이 돋보이고 자랑스럽다. 그런 탄부의 안해가 된 공지도 크다.」

탄부도 애국자이고 탄부의 안해도 애국자이다.

조국의 부강번영에서 기쁨을 찾고 가정의 행복을 찾을 줄 아는 그들이기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식들이 굴진공, 체당공이 되며 온 가족이 탄부가장이 되어 삶을 빛내고있다.

3개의 자랑인 로광철, 로도성부자, 탄부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탄전에 뿌리내린 김광수동무도 4형제...

그들속에는 굴진공도 있고 체당공도 있으며 전차운전공도 있다.

그들의 나이도, 맑은 일도 각이하다. 허나 그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있는것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탄을 캐낼 것인가 하는것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10년만 젊어도 마작에서 탄을 캐고싶다면 아버지수령님의 그 말씀에 심장

으로 그 이름을 떨치고있다. 한 탄부의 안해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탄부들 막장을 걷는 사람이다. 그 길은 비록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길이지만 평양과 잇닿아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잇닿아있는 애국의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탄부들이 더없이 돋보이고 자랑스럽다. 그런 탄부의 안해가 된 공지도 크다.」

탄부도 애국자이고 탄부의 안해도 애국자이다.

조국의 부강번영에서 기쁨을 찾고 가정의 행복을 찾을 줄 아는 그들이기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식들이 굴진공, 체당공이 되며 온 가족이 탄부가장이 되어 삶을 빛내고있다.

3개의 자랑인 로광철, 로도성부자, 탄부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탄전에 뿌리내린 김광수동무도 4형제...

그들속에는 굴진공도 있고 체당공도 있으며 전차운전공도 있다.

그들의 나이도, 맑은 일도 각이하다. 허나 그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있는것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탄을 캐낼 것인가 하는것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10년만 젊어도 마작에서 탄을 캐고싶다면 아버지수령님의 그 말씀에 심장

으로 그 이름을 떨치고있다. 한 탄부의 안해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탄부들 막장을 걷는 사람이다. 그 길은 비록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길이지만 평양과 잇닿아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잇닿아있는 애국의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탄부들이 더없이 돋보이고 자랑스럽다. 그런 탄부의 안해가 된 공지도 크다.」

탄부도 애국자이고 탄부의 안해도 애국자이다.

조국의 부강번영에서 기쁨을 찾고 가정의 행복을 찾을 줄 아는 그들이기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식들이 굴진공, 체당공이 되며 온 가족이 탄부가장이 되어 삶을 빛내고있다.

3개의 자랑인 로광철, 로도성부자, 탄부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탄전에 뿌리내린 김광수동무도 4형제...

그들속에는 굴진공도 있고 체당공도 있으며 전차운전공도 있다.

그들의 나이도, 맑은 일도 각이하다. 허나 그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있는것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탄을 캐낼 것인가 하는것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10년만 젊어도 마작에서 탄을 캐고싶다면 아버지수령님의 그 말씀에 심장

## 한생을 땅과 함께

토산군 백화협동농장 제1작업반장 백정숙동무는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사군에게 사회주의혁명에 애국헌신의 땀방울을 묻어가고있다.

천년시절 혁신자로 값있게 살며 드넓은 대지에 황금같은 열매를 마련해오던 그는 가정을 이루고 어린 자식들을 돌

보며 집안살림살이를 하면서도 농사군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그는 해마다 모판관리 책임자로 하여 좀더 값이 싼 쌀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안아오는데 한몫 담당하고 있다. 자식들을 인민군대로 떠나보낸 후에도 인민군대후방가족의 영예를 안고 모든 영농공작마다에서

복창군 소창협동농장 제1작업반장 최명모동무는 농사일의 앞장에서 실천적방법으로 작업반원들을 이끌어가고있다.

전국농부부문조정대회에 참가하여 영예를 헌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그는 대회에서 돌아오는 그날부터 포전별특성에 맞는 다수확농종을 선택하고 씨뿌리기부터 낱알까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

이름을 떨치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내린 그는 분조원들이 이제는 할한 일을 견고할때면 백정숙동무는 당시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수행을 위한 진초선을 지켜 소중히 이 땅을 가꾸어가는 농사군의 자라는 변함이 없어 아 한다고 하면서 모든 농사일의 앞장에서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어가고있다.

로동통신원 리 광 북

## 일욕심 많은 작업반장

일을 주체농민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갈수록 요구성을 부단히 높였다.

포전담당책임제의 의의와 중요성, 그 생활력을 실천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작업반장을 따라 모든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밭머리와 밭꼬리를 달무리를 가세내고 돌감담을 들어내면서 100포기이상의 무실을 더 심어

가며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나갔다.

봄에, 여름에 바람세찬 포전에서 진한 애국의 땀방울을 흘려서 최명모동무는 한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실천행동으로 작업반원들을 이끌어가고있다.

로동통신원 차 인 환

우렁으로 틀어치고 살며 일하는 이들의 불같은 지향과 애국정서는 하나와 같다.

쌀도 쌀 당과 조곡을 만들어가려는 마음은 순간순간 애국정신으로 빛나는 삶의 자욱자욱을 새겨가는 이들이기에 온 농장이 승벽이센 내상들이 분조정이라고 자랑하는 것이다.

로동통신원 최 만 열

사람들에게 장백의 물방아는 원군의 상징으로 새겨져있다. 항일유적지를 물심방면으로 전국 원호하며 높이 울리던 물방아소리, 애들들에게는 공포와 축음을 주고 유적지들과 인민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신심과 탄력을 안겨주던 그 물방아소리는 오늘도 세월의 언덕을 넘어 높이 울려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적으로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 하여야 합니다.」

지난 10월 18일 한경성, 리송중, 김성영, 리명화동무들을 비롯한 랑랑구역 혁명렬사유자녀들은 아버지수령님께사내다녀가던 녀성동생들에게

오늘도 물리는 장백의 물방아소리

제 91(2002)년 12월 강철로인을 비롯한 랑랑구역안의 혁명렬사유자녀들을 위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모소 보아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축하해 주셨다. 장군님께서는 자기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모소 보아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축하해 주셨다. 장군님께서는 자기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모소 보아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축하해 주셨다.

「아버지세대, 할아버지세대들이 높이 울렸던 장백의 물방아소리를 뜻깊이 이어갑니다.」

이들은 자체로 애송수들을 준비해가지고 건설장들을 찾아 경제전선에도 진행하면서 원군사업을 해나갔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가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였고 한가지라도 더 보내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였

로 공장은 이미 연간계획을 완수하였다.

자랑스럽다.

지금 이 시각도 조국방방곡곡의 일터마다에서 이들과처럼 맡은 일에 분투하며 혁신자의 영예를 떨쳐가는 수많은 준마치녀들과 로동계급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것만 같다.

창조와 혁신의 나날에 청춘의 희망과 포부를 아름답게 꽃피우는 그대들, 혁신자들이 있어 이 땅에서 로동의 노래소리 더 높이 울리리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명자

화차가 있는데도 화력탄을 실어 나르겠다는 것이 요즘 기관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그들의 불같은 호소가 일손마다에 감동으로 전해진다. 마치 싸우는 전호의 탄약공급수가 된듯 한 심정이었다. 누구나 화차수리과를 하루하루 끝까지 위한 생각으로 사색을 같이했고 결을 함께 내졌으며 밤을 지새웠다. 더 많은 화차수리를 위하여 사색도 실천도 함께 하는 나날 약속이나 한듯 화차수리과를 하루하루 끝까지 위한 생각으로 사색을 같이했고 결을 함께 내졌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러면 지난 10월 어느날 저녁 개천철도화차대에는 새로운 작업과제가 제기되었다.

밤공 들어온 화차들을 한시바삐 수리하여 랑랑들에게 떠나보내야 하였던 것이다.

회전준비를 서두르던 종업원들이 약속이나 한듯 다시 작업

화차가 있는데도 화력탄을 실어 나르겠다는 것이 요즘 기관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그들의 불같은 호소가 일손마다에 감동으로 전해진다. 마치 싸우는 전호의 탄약공급수가 된듯 한 심정이었다. 누구나 화차수리과를 하루하루 끝까지 위한 생각으로 사색을 같이했고 결을 함께 내졌으며 밤을 지새웠다. 더 많은 화차수리를 위하여 사색도 실천도 함께 하는 나날 약속이나 한듯 화차수리과를 하루하루 끝까지 위한 생각으로 사색을 같이했고 결을 함께 내졌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러면 지난 10월 어느날 저녁 개천철도화차대에는 새로운 작업과제가 제기되었다.

밤공 들어온 화차들을 한시바삐 수리하여 랑랑들에게 떠나보내야 하였던 것이다.

회전준비를 서두르던 종업원들이 약속이나 한듯 다시 작업

화차가 있는데도 화력탄을 실어 나르겠다는 것이 요즘 기관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그들의 불같은 호소가 일손마다에 감동으로 전해진다. 마치 싸우는 전호의 탄약공급수가 된듯 한 심정이었다. 누구나 화차수리과를 하루하루 끝까지 위한 생각으로 사색을 같이했고 결을 함께 내졌으며 밤을 지새웠다. 더 많은 화차수리를 위하여 사색도 실천도 함께 하는 나날 약속이나 한듯 화차수리과를 하루하루 끝까지 위한 생각으로 사색을 같이했고 결을 함께 내졌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러면 지난 10월 어느날 저녁 개천철도화차대에는 새로운 작업과제가 제기되었다.

밤공 들어온 화차들을 한시바삐 수리하여 랑랑들에게 떠나보내야 하였던 것이다.

회전준비를 서두르던 종업원들이 약속이나 한듯 다시 작업

화차가 있는데도 화력탄을 실어 나르겠다는 것이 요즘 기관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그들의 불같은 호소가 일손마다에 감동으로 전해진다. 마치 싸우는 전호의 탄약공급수가 된듯 한 심정이었다. 누구나 화차수리과를 하루하루 끝까지 위한 생각으로 사색을 같이했고 결을 함께 내졌으며 밤을 지새웠다. 더 많은 화차수리를 위하여 사색도 실천도 함께 하는 나날 약속이나 한듯 화차수리과를 하루하루 끝까지 위한 생각으로 사색을 같이했고 결을 함께 내졌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러면 지난 10월 어느날 저녁 개천철도화차대에는 새로운 작업과제가 제기되었다.

밤공 들어온 화차들을 한시바삐 수리하여 랑랑들에게 떠나보내야 하였던 것이다.

회전준비를 서두르던 종업원들이 약속이나 한듯 다시 작업

화차가 있는데도 화력탄을 실어 나르겠다는 것이 요즘 기관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그들의 불같은 호소가 일손마다에 감동으로 전해진다. 마치 싸우는 전호의 탄약공급수가 된듯 한 심정이었다. 누구나 화차수리과를 하루하루 끝까지 위한 생각으로 사색을 같이했고 결을 함께 내졌으며 밤을 지새웠다. 더 많은 화차수리를 위하여 사색도 실천도 함께 하는 나날 약속이나 한듯 화차수리과를 하루하루 끝까지 위한 생각으로 사색을 같이했고 결을 함께 내졌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러면 지난 10월 어느날 저녁 개천철도화차대에는 새로운 작업과제가 제기되었다.

밤공 들어온 화차들을 한시바삐 수리하여 랑랑들에게 떠나보내야 하였던 것이다.

회전준비를 서두르던 종업원들이 약속이나 한듯 다시 작업

화차가 있는데도 화력탄을 실어 나르겠다는 것이 요즘 기관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그들의 불같은 호소가 일손마다에 감동으로 전해진다. 마치 싸우는 전호의 탄약공급수가 된듯 한 심정이었다. 누구나 화차수리과를 하루하루 끝까지 위한 생각으로 사색을 같이했고 결을 함께 내졌으며 밤을 지새웠다. 더 많은 화차수리를 위하여 사색도 실천도 함께 하는 나날 약속이나 한듯 화차수리과를 하루하루 끝까지 위한 생각으로 사색을 같이했고 결을 함께 내졌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러면 지난 10월 어느날 저녁 개천철도화차대에는 새로운 작업과제가 제기되었다.

밤공 들어온 화차들을 한시바삐 수리하여 랑랑들에게 떠나보내야 하였던 것이다.

회전준비를 서두르던 종업원들이 약속이나 한듯 다시 작업

년 계획원수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헌애는 그대들을 안고 위훈의 나날을 수놓아온 선교편지공장의 년계획원수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가슴에 꽃피음을 한가득 안은 녀성로동계급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년 계획원수자도 있고 2년분과제를 해낸 녀성종업원도 있다.

하루계획을 100%, 200% 넘쳐 수행하도록 성취하지 않아 로동의 하루하루를 달리고 또 달리는 이들이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

년 계획원수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헌애는 그대들을 안고 위훈의 나날을 수놓아온 선교편지공장의 년계획원수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가슴에 꽃피음을 한가득 안은 녀성로동계급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년 계획원수자도 있고 2년분과제를 해낸 녀성종업원도 있다.

하루계획을 100%, 200% 넘쳐 수행하도록 성취하지 않아 로동의 하루하루를 달리고 또 달리는 이들이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

년 계획원수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헌애는 그대들을 안고 위훈의 나날을 수놓아온 선교편지공장의 년계획원수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가슴에 꽃피음을 한가득 안은 녀성로동계급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년 계획원수자도 있고 2년분과제를 해낸 녀성종업원도 있다.

하루계획을 100%, 200% 넘쳐 수행하도록 성취하지 않아 로동의 하루하루를 달리고 또 달리는 이들이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

년 계획원수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헌애는 그대들을 안고 위훈의 나날을 수놓아온 선교편지공장의 년계획원수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가슴에 꽃피음을 한가득 안은 녀성로동계급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년 계획원수자도 있고 2년분과제를 해낸 녀성종업원도 있다.

하루계획을 100%, 200% 넘쳐 수행하도록 성취하지 않아 로동의 하루하루를 달리고 또 달리는 이들이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

년 계획원수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헌애는 그대들을 안고 위훈의 나날을 수놓아온 선교편지공장의 년계획원수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가슴에 꽃피음을 한가득 안은 녀성로동계급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년 계획원수자도 있고 2년분과제를 해낸 녀성종업원도 있다.

하루계획을 100%, 200% 넘쳐 수행하도록 성취하지 않아 로동의 하루하루를 달리고 또 달리는 이들이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

년 계획원수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헌애는 그대들을 안고 위훈의 나날을 수놓아온 선교편지공장의 년계획원수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가슴에 꽃피음을 한가득 안은 녀성로동계급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년 계획원수자도 있고 2년분과제를 해낸 녀성종업원도 있다.

하루계획을 100%, 200% 넘쳐 수행하도록 성취하지 않아 로동의 하루하루를 달리고 또 달리는 이들이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

년 계획원수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헌애는 그대들을 안고 위훈의 나날을 수놓아온 선교편지공장의 년계획원수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가슴에 꽃피음을 한가득 안은 녀성로동계급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년 계획원수자도 있고 2년분과제를 해낸 녀성종업원도 있다.

하루계획을 100%, 200% 넘쳐 수행하도록 성취하지 않아 로동의 하루하루를 달리고 또 달리는 이들이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

년 계획원수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헌애는 그대들을 안고 위훈의 나날을 수놓아온 선교편지공장의 년계획원수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가슴에 꽃피음을 한가득 안은 녀성로동계급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년 계획원수자도 있고 2년분과제를 해낸 녀성종업원도 있다.

하루계획을 100%, 200% 넘쳐 수행하도록 성취하지 않아 로동의 하루하루를 달리고 또 달리는 이들이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

년 계획원수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헌애는 그대들을 안고 위훈의 나날을 수놓아온 선교편지공장의 년계획원수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가슴에 꽃피음을 한가득 안은 녀성로동계급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년 계획원수자도 있고 2년분과제를 해낸 녀성종업원도 있다.

하루계획을 100%, 200% 넘쳐 수행하도록 성취하지 않아 로동의 하루하루를 달리고 또 달리는 이들이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

## 독자의 편지

저는 영예군인의 안해입니다. 남편의 시종을 들면서 자식들을 돌보는 저와 그의 가정의 신의주시 동년소학교 립춘환선생님은 10년이 넘도록 사색을 위해 하루도 휴가 용기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치료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할까봐 선생님은 아이들을 담임했을 때에는 가방과 신발, 넥타이와 학용품을 철따라 갖추어주곤 하셨습니다. 우리 딸을 낳은 오늘에는 그렇게 위해주기도 모자라는데 슬픔까지 가져다가 입혀주며 여러모로 위해주고 있습니다.

## 이런 참된 교육자를 자랑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을 그리워하는 저의 장남의 마음을 헤아려 학생들과 함께 노래를 안고 찾아왔습다. 너무나도 근진히 위해주고 세심히 돌봐주기에 제가 만년마다 고맙고도 인사할때는 더는 감동하지 못하고 할 때면 선생님은 조국을 위해 피와 청춘을 바친 영예군인인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잘 돌봐주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마땅한 의무라고 하면서 영예군인자녀를 담임한다는 자기에게 차대진 흔치 않은 복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흔치 않은 복, 그 말을 들으며

## 린 접은 없다

개천철도국 개천화차대 일군들과 종업원들

수리는 다그쳐왔다.

드디어 수리를 마친 화차들이 떠나가게 되었을 때 수리중에서 진두원들이 한층더 자기들도 한몫하였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을 들먹였다.

화차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생산에 떨쳐나선 준비중대의 진두원들의 열의도 이만치만 아니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이들은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자기들만의 부속품들을 제때 생산보장해나갔다.

그러면 어느날 중대장 김중국동무는 차비귀공에 열중하고 있는 소대장 지철혁동무를 보게 되었다. 몸도 불편한데도 진두원 일이라고 타이렸던만 좀처럼 몸을 아끼질 모른다는 것이다. 한동안 지켜보던 중대장이 다가와서 그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린 접은 없다! 벌써 잊었습니까? 우리 때문에 화력탄수송

## 10여년을 변함없이

명천군체신소 체승원 박정숙동무는 군인의 일군들과 주빈들로부터 순결한 평생을 지닌 참된 인간, 우리 군의 승은 노력가로 불리우고있다.

20여년전까지만 해도 그는 명천역에서 출퇴근으로 일하

어느날 이른 새벽 명천역에서 당부를 비롯한 당직출판물을 받아 군체신소까지 배송하던 그의 남편이 뜻하지 않게 사망하였다. 후날 박정숙동무는 군체신소당직을 찾아가 당직출판물체중의 길에서 생을 마친 남편의 묘까지 합쳐 일할것을 다짐하였다.

그때부터 박정숙동무는 10여년째 눈비리리나 찬바람이 부나 누가 보지않고, 알아주지 않는 당직출판물과 우편물들을 넣고 비닐로 간신히 싸고 또 싸가지고 자그마한 손상도 없이 운반하는 박정숙동무를 보며 사람들은 참된 인간의 품도에 감동을 금치 못해한다.

로동통신원 최 성 순



